

기고



문 병 옥 장흥군청 재무과 과장

수승화강(水昇火降)

맞춤형 세입 징수로 건전 재정 확보와 희생 지원

지방분권 및 청렴·혁신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Push 행정의 객체인 '주민'에서 행정서비스 객체인 '고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재정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천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세 징수는 세원 발굴의 한계성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국세가 나라 살림의 근간이라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살림 밑천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도나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체납한 경우도 있었지만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들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세금을 체납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

형이 다양화·고집화 되고 체납 수법도 날로 고도화, 전문화됨에 따라 체납 사유와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부과고지 단계에서부터 체납 방지를 위한 업무 처리와 체납액 발생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정 업무를 다년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Cool head, but Warm heart)"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을 냉철하게 집행하고, 단순 체납자에게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세무 공무원, 즉,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을 위한 문구가 아닌가 싶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객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적극적인 징수 마인드가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동안 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법 사례를 소개하면,

첫 번째, 군 산하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최선이다.

'사업 주관 부서와 재무과에서는 주 채권단과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000 인가 연장 및 000 건설에 따른 행정 제반 사항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사업 시행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 끈질긴 설득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돌아서서 체납세금 완납'

두 번째, 개인회생 알고 보니 알짜네!

'사업 부진 및 경영 악화 등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경매가 개시·결정되어 장기간 체납세금 징수가 어려웠으나 체납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납자 면담을 통하여 휴양종합레저타운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지역 이미지에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적극 설득하여 중개자 역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재산관리자와의 수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체납세금 완납'

시하여 체납세금 완납' 세 번째, 잘 살펴보면 체납액 징수길이 보인다.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거 000을 공급받은 해당 회계책임자에게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명의의 계좌가 있음을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알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 통장압류 사실을 주지시켜 체납세금 완납'

네 번째, 살길은 터주고 체납액 징수합니다.

'000을 운영 중인 체납자가 타인의 채무 보증으로 인하여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부도 직전 상태로 000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나 군에서는 00을 공급해 주면서 살길을 열어주고 체납세금을 총담함으로써 군과 사업자간 win-win 전략을 통해 체납세금 완납'

우리 군의 경우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를 올리기 평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올리기 평가에서 최근 3개년 간 최우수·우수·장려상을 매년 수상하여 명실상부 체납세금 징수에 있어 타 시·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체납자의 체납 성향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새로운 징수기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징수기법을 벤치마킹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세수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기고

가정폭력!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켜보고(look again) 지켜주자

최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정부와 기관들이 연계하여 적극적 대응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과 시설 등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부적응과 행동장애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라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률도 높고 조기발견 또한 어려워, 주변의 주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혹시 '보라데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는 많이 알고 있지만 '보라데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보라데이'는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부터 매월 8일,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만든 날이다. '보라'는 '보다'의 영어표현인 'LOOK'의 'OO' 모양처럼 매월 8일로 날을 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가정 폭력은 집안 일이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눈을 크게 뜨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주변을 잘 살펴봐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의미이다.

5월이 가정의 달이니만큼 가정의 소중함과 함께 누구든지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라데이'의 의미에 알맞은 실천과 그 노력들이 봄바람처럼 번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주현/여수경찰서경무계행정관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홀로족 노린 '몸캠피싱' 주의보

통신매체를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싱은 관련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등 2차, 3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 사실을 신

고하거나 가족과 동료 등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가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피싱범들은 SNS나 영상통화, 화상채팅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도록 유도한 뒤 주소

록 등을 확보한다.

이후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가족,지인들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가장해 신체 노출을 유도하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위촉된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한 번이라도 들어주게 되면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을 경우 가급적 빠르게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무분별 유포 등 피해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내내파출소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